

# 빛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 급증

## 이주환 의원 중진공 국감 자료

지난해 광주·전남 중소기업 1500여 개가 4150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며 최근 3년 내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 들어 값어치 할 대출잔액은 1조원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금리 인상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투가 깊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융자금액은 4153억원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8%(904억58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책자금 융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전년보다

지난해 광주·전남 1533개사

4153억...전년비 27.8% 늘어

올해도 역대 최고액 기록할 듯

올 9월 대출 잔액 1조원 돌파

값지 못한 사고자금도 크게 늘어

33.3%(494억원) 증가한 1978억원, 전남은 23.2%(410억원) 늘어난 2176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을 받은 업체는 광주 720개·전남 813개 등 1533개사로, 한 곳당 2억7100만원 가량을 빌린 셈이다.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3204억2000만원(광주 1542억·전남 1662억) ▲2018년 3147억1600만원(광주 1436억·전남 1711억) ▲2019년 3249억8000만원(광주 1484억·전남 1766억)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융자는 광주 1600억8000만원·전남 1644억2700만원 등 3244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융자금액의 78% 수준으로, 올해도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와 재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책융자문을 두드린 지역 업체들의 대출 잔액은 올해 9월 1조원을 넘겼다.

올 9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광주 4544억원·전남 5877억원 등 1조421억원으로, 지난해 말(9299억

원)에 비해 12.1%(1122억원) 늘었다.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값지 못한 정책자금을 올 들어 200억원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집계한 정책자금 사고 금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 38억원·전남 165억원 등 203억원이다. 사고금액은 장기연체 또는 도산으로 인해 융자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융자계약 약정이 해지, 공단이 해당연도 기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광주·전남 사고금액은 광주 100억원·전남 152억원 등 252억원으로, 전년보다 14.9%(33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 증가율 9.5%를 크게 웃돌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민간은행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진공이 채권(중진채) 등을 발행해 조성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주환 의원은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대출 회수가 어려워 손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정책 자금 대출 규모 확대에 따라 손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신세계 다문화 가정 장학금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오른쪽 세번째)는 14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아시아복지공동체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이주민 전래동화책 출판, 의료 봉사, 작은 도서관 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전남 전통시장 40%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점포 1만4546개 중 5671개 무등록

지난해 광주·전남 전통시장 점포의 40%에 달하는 무등록 점포 5600여 곳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통시장(인정시장) 점포 1만4546개 가운데 39%에 달하는 5671개는 무등록 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7-10월 조사를 벌인 결과 지역 전통시장은 광주 24개·전남 100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전통시장에는 광주 3481개·전남 1만1066개의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등록되지 않은 노점 상인은 광주 7857개·전남 4886개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3%, 44%로 나타났다.

전남 무등록 점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16%)의 2.8배 수준으로 높았다.

전남에 이어 울산(40%), 세종(34%), 충남(28%), 경북(27%), 전북(24%), 광주(23%), 경남(22%), 강원(19%), 충북(17%) 등 10개 시·도가 전국 평균 비율을 웃돌았다. 반면 서울 전통시장은 점포 4만5192개 가운데 5%인 2215개만 무등록 점포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5개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무등록 점포 비율은 35%(2만6177개 중 7128개)로 가장 높았다.

충청권의 무등록 점포는 2만8022개 중 21%인 4443개였고, 영남권 8만6289개 중 18%인 1만5329개, 제주·강원권 1만2233개 중 15%인 1806개, 수도권은 7만6761개 중 7%인 5379개였다.

무등록 점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송갑석 의원은 "전통시장 노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금융 지원, 노점 운영권 인정 등 무등록점포 양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사학연금 새 목표관리체계 'OKR' 도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목표관리체계인 OKR(오브젝티브 키 리절트)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날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워크숍을 진행했다.

OKR은 이상적인 목표를 수립한 뒤 핵심 결과를 통해 목표를 위한 방법을 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최근 한화금융그룹이 모든 계열사에 이 체계를 도입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사학연금은 핵심 업무를 선정하는 데 집중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축소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경영에도 주력한다.

연말까지 새 목표 체계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이를 경영계획에 본격 반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전력 신임 상임이사

### 이흥주 전 UAE원전건설처장

한국전력은 14일 신임 상임이사에 이흥주(60·사진) 전 UAE원전건설처장을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전은 이날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 전 처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해외원전본부장(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신임 부부장은 춘천고와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1984년 한전에 입사했다. 2009년 원자력사업처 원자력사업팀 부장처 2013년 UAE원전건설처 사업총괄실장, 지난해 UAE원전건설처장 등을 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역 대형마트 먹거리·화장품 주말 할인전

지역 대형마트 3사들이 지난 10일 의무휴무를 하며 놓친 '한글날 대목'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주말 다양한 할인전을 마련했다.

이마트는 '집밥'을 위한 즉석 조리식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롯데마트는 환절기 보습상품 기획전 준비했다.

광주·전남 6곳을 포함한 전국 이마트는 오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키친텔리 코너 내 국산 문어를 활용한 초밥, 튀김 등의 신상품 6종을 행사카드로 구매 때 20% 할인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는 문어초밥과 문어·생연어초밥(각 10입·1만384원), 문어·전복초밥(10입·1만2784원) 등이 있다.

문어 가라아게(100g·4384원), 문어·순살치킨 가라아게(8784원), 문어·안심텐더(1만384원) 등 튀김류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동영 등 남해안에서 어획한 문어 총 10t을 사전 확보했다. 오는 11월



14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이 27일까지 진행되는 '보습용 기초 화장품 기획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에는 제철을 맞은 국내산 새조개, 키조개 등을 활용한 조개 초밥을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27일까지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보습용 기초 화장품 기획전을 마련했다.


참여 브랜드는 뉴트리나, 바이오더마 에이비씨, 아모레퍼시픽, AHC 등으로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기획상품을 각각 9900원부터 3만5900원 등에 살 수 있다.

엘포인트 회원이 행사 카드로 기초 화장품 12대 인기 브랜드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당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해당 브랜드는 존슨앤존슨, 니베아, 온더바디, 아모레퍼시픽, 메디앙스, AHC, 멘소래담, 버즈비, 에이비씨덤 바이 바이오더마, 그린핑거, 궁중비체, 유니레버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88.64 (+44.23)
↑ 코스닥	983.43 (+29.96)
↓ 금리(국고채 3년)	1.813 (-0.011)
↓ 환율(USD)	1186.80 (-7.00)



포도에서 만남시다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 건넨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

